



각자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와 같으니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자기님을, 즉 말하자면 과거에 수없이 살아오고 형성시킨 자기 자랑스러운 나를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본래는, 그런 건데 모두 기독교에서나 가톨릭교회에서나, 나도 가톨릭교회에 좀 있어 봤습니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껏 잘못해 놓고 고해 성사 할 때는 신부님한테 가서 다 읊고 돌아서죠, 그러면 편안하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나도 그래 봤으니까요,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에누리 없는 게 세상살이예요, 삶이예요, 모두가, 우연히도 없어요, 부부가 만났는데도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 보세요, 전부 끼리끼리 놓여 있지, 상점에도 끼리끼리 놓여 있지 뒤섞여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차원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따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망해도 내가 잘못해서, 양양거려서 재수가 없어서 안됐느니 이런 소린 아예 하지 말라, 이 소리죠, 모두가, 모두가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자기 탓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가 돈을 벌었어도, 또 망했다 하더라도 자기 탓이예요, 자기가 없다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탓이죠, 안 그래요?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말을 했는데 두서없이 말을 하더라도 모두 생활에 관한 건이니까 자세히 듣고 그대로 행해 보신다면 아마 이익이 90%, 80% 될 겁니다. 인제 앞으로 점점 100%, 120%가 같은지는 또 여러분한테 달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거, 진짜로 믿는다면 재깍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가 믿지 않아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지, 아까 말했듯이 대신 죽어 주지도 않고 대신 먹어 주지도 않고, 잠도 자 줄 수 없고 아파 줄 수 없는 상대를 믿고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니 글썩,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나를 아프면 아픈 대로 리드해 나가고, 나를 가게 하고 오게 하고,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물리가 터지게 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울게 하고, 즐거우면 웃게 하고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나의 보디가드를 그렇게 못 믿어요, 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죽는

거든지 사는 거든지 다 보디가드가 돼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 그것을 불가에서 말하면 '보신'이라고 그러죠, '보현신'!
그래 이 법당이 이렇게 있으면요, 부처님 모셔 놓고 문수보살 모셔 놓고 보현보살 모셔 놔죠, 그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생각이, 바로 문수가 부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면 그게 법이 되거든요, 생각하면 법이 되고 생각을 받는 사람이 보현이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예요, 부처님의 생각이 문수요, 법이요, 생각하면 법이니까 법신이요, 또 법신이 '이렇게 했으면...' 하면 벌써 보현이 재깍 받아서 읊

죽거리니까요, 그러니 한 몸에도 그런 게 있던 애깁니다. 여러분도 문수 보현 다 끼고 다니시죠? 바른팔 왼팔 다들요, 생각을 했으면 움직거리시죠? 그게 법신, 저 문수예요, 법신이요 바로 보신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뚱이도 귀중한 몸뚱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남한테 짓밟히고 넘겨 그 밧길에 차이고 이렇게 살 거러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겠습니까? 좀 그런 걸 알고 사세요.
그래 가지고는 하이구, 가만히 보면 법당에 가거나 강당에 가면 기도하면서 그냥 '아휴, 하느님 아버지시여!' 또 불당에 가면 '하이구, 부

루죠,

그리고 또 좋은 데로 못 가서... 그 누구나가 또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가 산 대로,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모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로 나왔다면 개 대접밖에 못 받죠, 우리가 살아 보지 않아요? 개 새끼 개 새끼지 뭐, 사람의 새끼나 이러죠, 그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대접밖에 못 받는다, 아무리 대접을 잘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뱀이라면 뱀의 대접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한 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된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해서 이 공부에는 모든 걸 무효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다 그냥 무효를 시키면서 새로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빌어서,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죠, 왜? 빌어서 뭐를 조금 얻어서 쓴다 하더라도 또 그거 없으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그럴 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 어떤 때는 그래요, "아, 나한테 좀 더 마음을 크게 내 주셔서 좀 해 주시요." 이러죠, 그거 다 생각이 있죠, 나 나름대로, 그렇지만은 본인을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그러세요." 이러서는 절대 안 되죠, 본인이 직접 하게 만들면서 해 줘야죠, 해 줄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인더러 "관하시면, 그대가 그대의 주인공에 관하시면 되죠, 열심히 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 야 되겠으니까, 나부터라도 지금 집안에서 콩 튀듯 팥 튀듯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면 내가 말 한마디라도, 그 말 한마디 해 줄 때 겁나요, 허, 내가 자신 없는 말을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알았다'고 그냥 그러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모른든 알든 모두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건데, 자기가 강도질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없다,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신기한 소리 좀 할까요? 보시면 보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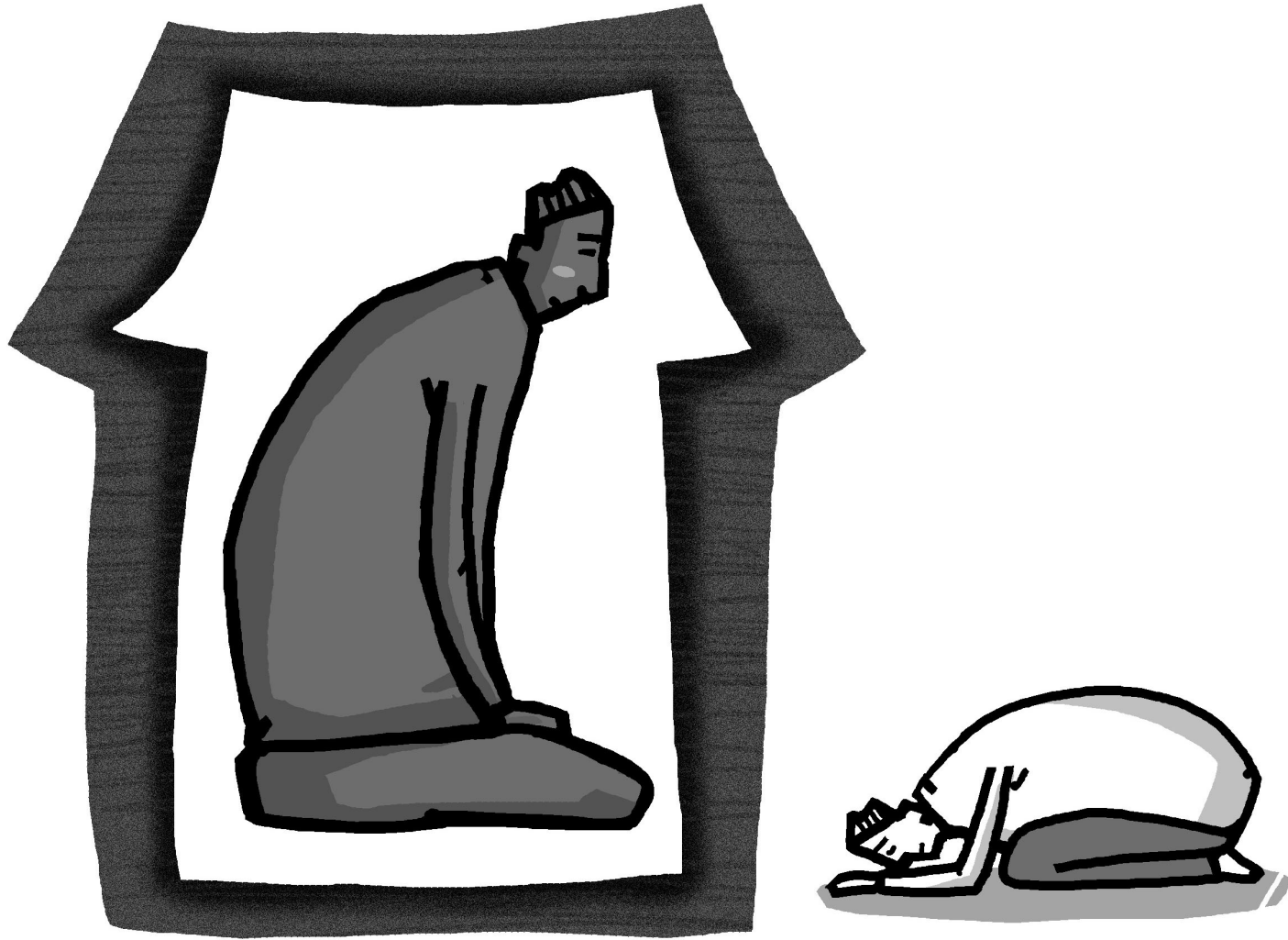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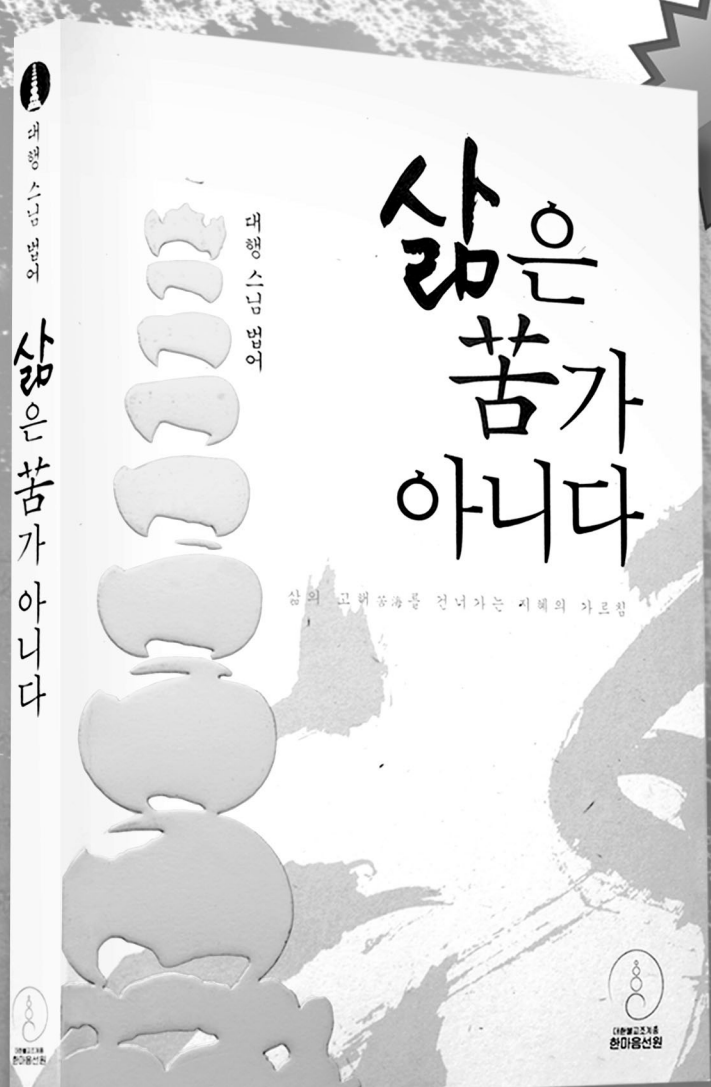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통이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어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훈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훈 천수경(한글/영어)

10,000원 A5 / 287쪽

